

글쓰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가 첨삭법

- 학술적 글쓰기(리포트)를 중심으로 -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난 뒤 고쳐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글, 잘 읽히는 글은 한 번에 써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의 리포트나 연구 소논문과 같은
학술적인 글의 경우 더욱 퇴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술적인 글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고쳐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조건

흔히 리포트라고 말하는 대학교육의 학술적 글쓰기는 형식적 조건(목차, 인용과 각주 및 참고문헌 등)을 갖춘 연구 소논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에세이와 비평문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며, 이러한 학술적 글쓰기는 소통과 탐구능력 함양을 목표로 지향합니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창의적인 문제발견 및 제기

학술적 글쓰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글쓰기이므로, 유의미하고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련의 논증 과정 포함

주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고, 논리적 추론이나 다양한 방법의 조사 혹은 실험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 또한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3

일정한 형식의 조건 갖추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학술적 글쓰기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논리적 구성, 인용과 각주, 참고문헌 등을 포함합니다.

4

윤리적 조건 갖추기

표절, 변조, 위조 없이 학문적 정직성에 입각하여 글을 써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글,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글은 독자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퇴고를 위한 자가 첨삭법

초고가 완성되었다면, 반드시 퇴고(고쳐쓰기)를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퇴고란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내용과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문제점이 잘 안 보인다면? 아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예' 또는 '아니요'에 V표시 하고, **'아니요'에 표시가 되었다면, 고쳐쓰기를 진행해 봅시다.**

1. 주제 및 서론

	예	아니요
① 제목에 '주요 주장의 핵심어휘'가 들어 있는가?		
② 논증을 짤 만큼 중요한 주장인가?		
③ 도입부에 주제와 관련한 문제, 현상을 제시하였는가?		
④ 도입부에 주제의 의의, 글의 목적 및 필요성을 언급하였는가?		
⑤ 문제 제기부에서 글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대략적으로 안내하였는가?		

2. 본론

	예	아니요
① 화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들어가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② 근거가 믿을 만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가?(출처의 정확성, 신뢰성)		
③ 뒷받침문장들이 적절한 연결어와 지시어를 사용해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가?		
④ 반론을 수용하고 반박하였는가?		
⑤ 소제목 또는 단락나누기를 통해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는가?		

3. 결론				
-------	--	--	--	--

	예	아니요
① 결론에서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새롭게 제시하지 않았는가?		
②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글을 끝맺었는가?		
③ 앞으로의 기대나 전망을 서술하였는가?		

4. 표현과 형식				
-----------	--	--	--	--

	예	아니요
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		
②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잘 하였는가?		
③ 각 구성마다 적절하게 글의 양을 배분하였는가?		
④ 인용,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고쳐쓰기 연습문제

예제1

다음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성화봉송사건*과 관련하여 A학생이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주제(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에서 진행된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애국주의를 표방한 중국 유학생들이 티벳 독립과 중국 인권 문제로 성화 봉송 반대시위를 벌이던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

주제 선정 : “중국인들의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있나?”

예제2

다음은 B학생이 쓴 글이다. 어색한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17년째 중이다. 그러나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많지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간 상황이다.”

풀이

<예제1> ‘중국인들의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있나?’라는 제목을 지었다면? 이것은 유의미한 주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제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니요’라고 모두 한 가지로 대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안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이에게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문제로서 가치가 없거나 유의미한 주제가 아니다. 만약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는 정당화될 수 있나?’로 제목을 만든다면 유의미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예’, ‘아니요’ 양측 모두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제2> ‘집행’과 ‘이루어지다’ 와 같이 동의어 중복표현과 ‘그러나 ’ 와 같이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접속부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장을 고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7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많지만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날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참고문헌>

김광미(2015), 대학생 학술적 글쓰기 첨삭 지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